

보도 일시	2022. 5. 15.(일) 11:00 5.16.(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5. 13.(금) 16:00
담당 부서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나영 (044-201-1791)
		담당자	사무관 최종순 (044-201-1794)

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

- 농업재해대책상황실(5.15~10.15)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 -

주요 내용

- 태풍·호우·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기간(5.15.~10.15.) 중 「농업재해 대책상황실」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 추진
 - (상황관리) 농업재해대책상황실(6개팀) 구성·운영, 24시간 상황관리
 - (공조체계) 중대본, 농진청·산림청·농협·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 (피해대응) 관계·유관기관 협력,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지원
 - (농가홍보) TV, SMS, 마을방송 등 활용, 기상·예방요령 전방위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하여,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 및 평균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가을태풍(9~10월)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강조하였다.

* 평균수온 : ('17) 23.3℃ → ('18) 23.9 → ('19) 22.8 → ('20) 21.8 → ('21) 23.8

* 가을태풍 : (70년 평균) 0.8개 → (30년 평균) 0.9개 → (10년 평균) 1.3개 → (5년 평균) 1.6개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322억원, 태풍(오마이스, 찬투) 296억원, 폭염 61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되었다. '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해 4,75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되는 등 최근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 '17 ~ '21년 여름철 농업분야 주요 피해 >

- ▶ (풍수해) 태풍, 호우 등으로 농작물 침수, 농림시설물 파손 등 피해
 - * 농작물 : ('17) 4,674ha → ('18) 55,187 → ('19) 80,206 → ('20) 158,105 → ('21) 45,137
 - * 농림시설 : ('17) 7ha → ('18) 84 → ('19) 258 → ('20) 426 → ('21) 16.1
- ▶ (폭염) 강한 일사와 고온으로 가축폐사, 과일 햇볕데임 등 피해
 - * 가축 : ('17) 726만마리 → ('18) 908 → ('19) 219 → ('20) 56 → ('21) 83
 - * 농작물 : ('16) 16,667ha → ('18) 22,509ha → ('21) 1,546ha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가축매몰지,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하여 5월 2일부터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 (수리시설) D등급 이하 저수지 점검, 배수장,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
- ▶ (원예시설) 시설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 ▶ (축산·방역)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가축 매몰지, ASF 위험지역 점검
- ▶ (산사태·태양광)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설치 취약지역 점검 등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 송풍팬, 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가축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1 : 육계, 토종닭 → '22: 육계, 토종닭 + (추가) 돼지, 오리)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폭염특보시 문자 메시지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70세 이상 농업인 12만 9천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와의 공조유지, 피해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추 계획이다.

- ▲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6개팀, 20명)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재해대책상황실장(총괄)					
총괄팀(3)	초동대응(6)	수리시설(2)	식량·원예(4)	축산·방역(3)	산사태태양광(2)
팀장: 재해보험과장 팀원: 재해보험과 2	팀장: 수리 식량 등 5개팀 중 4~5급 팀원: 수리 식량 등 5개팀 각1명	팀장: 간척농업과장 팀원: 간척농업과1	팀장: 원예산업과장 팀원: 원예산업과 1 원예경영과 1 식량산업과 1	팀장: 축산경영과장 팀원: 축산경영과 1 구제역방역과 1	팀장: 농촌정책과장 팀원: 농촌정책과 1

- ▲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지자체·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을 추진한다.
 - (중대본) 거대재해 발생시 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 (지자체·유관기관) 중앙에서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2천명)을 구축하였고,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 (피해대응) 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 (응급복구) 국방부,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확산 방지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 (복구지원) 피해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 ▲ (농가홍보) 기상특보(주의보·경부)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방송 및 TV 자막방송(YTN, NBS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태풍, 집중호우, 폭염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기상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공사지역·산사태 우려지역 접근금지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태풍·호우 시 국민행동요령
- 2. 여름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 안전관리 요령



국민행동요령



태풍 · 호우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붙임 2

여름철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 안전관리요령

농기계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 오물과 습기를 제거한 후 기름칠하여 통풍이 잘 되고 비가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

-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물로 깨끗이 닦은 후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기름칠하고 수리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다음 사용
- 기화기, 공기청정기, 연료여과기 및 연료통 등은 습기가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환



안전사고 예방

집중호우 시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를 하고, 고압전선(가로등, 신호등)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한다.

- 천둥·번개 등 악천후로 인한 낙뢰 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 안이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집 주변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위험이 예상된 경우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대피 준비를 한다.
- 다리나 하천으로는 안전하지 확인한 후에 이용한다.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8900)

농업기술상담 / 농촌진흥청(1544-8572),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정보 /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요령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업피해(침수, 도복, 낙과, 시설물 파손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www.rda.go.kr



벼

배수로 잠초 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하여 원활한 물 빠짐 유도

-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일 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 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비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과 잔디 오물 제거
-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 하여 뿌리의 활력 촉진
- 침관수된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및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



<침·관수 벼 휴양급 및 오물 세척 효과(관수급)>

생육시기	1 ~ 2일	3 ~ 4일
유숙기 (이삭번 후 10일)	방치 → 세척	방치 → 세척
유숙기 (이삭번 후 20일)	30 → 16%	40 → 20%
유숙기 (이삭번 후 30일)	20 → 11	30 → 16
황숙기 (이삭번 후 30일)	5 → 3	10 → 5

※ 침수 : 식물체(농작물)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상태 / 관수 : 식물체(농작물)의 전체가 물에 잠기는 상태

축산

축사·전기시설 점검 및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수시 분뇨 제거로 유해가스 발생 방지 및 적정 습도 유지
- 가축 및 축사 소득·방제장비 확보 및 차단망 설치
-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로 정비하여 습해 방지
- 사료는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고, 변질된 사료는 주지 않도록 함



농업 시설물

비닐하우스, 축사 등 풍수해 위험지구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수

- 수방지대 장비 미리 확보 및 비축관리
-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예방
- 비닐 교체 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 예방



[비닐 사전 제거 하우스]



[일반 피해 하우스]

피복비닐 보수, 환기창 등 개폐부위를 점검하여 하우스를 철저히 밀폐

- 환기팬이 설치된 경우 팬을 가동하여 비닐하우스가 들뜨는 것을 방지
- 고정끈 확인 및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 등 하우스 주변 정리
- 하우스 벽면 브레이싱(가새) 설치,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예방
- 깨끗한 물로 작물 및 기지재 등을 씻어주고 방제를 실시
- 피해 상황을 시·군 행정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복구 지원 요청



밭작물·원예작물

밭작물

- 배수로로 깊게 설치하여 습해 사전 예방
- 참깨는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 방지
- 비오기 전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 쓰러진 농작물 세우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 흙을 보완해주기
-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 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원예작물(과수)

- 밀식재배는 철선 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확인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 ※ 매 평릭 시설 과원은 3m 간격의 철재 파이프 사카래에 가로대를 설치하여 겉가지 묶어주기
-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 뿌려주기
- 사과 갈무늬썩음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피해가 심할 경우 수세회복을 위하여 요소 0.2% 액(비료 40g, 물 20L) 잎에 뿌려 주기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

폭염이란?

• 더위가 심한 것을 말하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폭염 특보 기준

- **[폭염주의보]** 일최고체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일최고체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전 준비사항은

-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인
- ▶ 냉방기기 사용시 실내 · 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간강온도 26~28℃)



주의보 발령시

-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기
- ▶ 사살하우스나 야외 작업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착용
-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첩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물 1ℓ에 소금 1/2 작은술을 섞어서) 섭취하여 탈수증 예방



경보 발령시

- ▶ 12사~17(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사살하우스 작업 금지, 휴식 취하기
- ▶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 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

"자연재해 발생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890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 농촌진흥청(1544-8572), 각시 · 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정보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

농촌
보다 나은 농촌진흥청

농업인의 건강과 농촌을 관리가 중요합니다.

www.rda.go.kr



폭염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요령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고온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 작물 ▶ 생육부진으로 인한 수량감소, 양분 결핍, 품질이 저하됩니다.
- 가축 ▶ 식욕저하, 발육부진, 질병발생 등의 피해가 나타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작물 관리요령



벼

- 관개용수 충분할 경우 물 출라대기를 실시하여, 근산과 칼륨 비료를 더 줍니다.
- *벼 생육 최고온도 : 관수분열기 38℃, 개화 -수정기 35℃



발작물

- 스프링클러 가동 및 잡 · 물 등으로 발작물 뿌리 주위를 피복하여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합니다.
- *용 개화 · 수정기 35℃ 이상에서 생육상태를 받아 고무리과 광합의 생장 억제사과
- 사전 배토작업 실시, 건조 우려시 표토를 긁어주어 수분증발을 억제합니다.
- 폭염 지속시 고온성 해충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사전에 방제를 실시합니다.



채소, 과수

- **[공통]** 관수 실시로 토양 염습을 유지하고 생육부진 시 염면시비를 실시합니다.
- **[채소]** 노지작물은 흑색비닐 · 차광망 등으로 이랑을 피복하고, 비가림 재배모집은 차광망을 설치하여 토양 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합니다.
 - 고추는 인자병, 역병, 점고병, 진드물 등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실시하고 일소과, 석회결핍과 등 피해과실을 빨리 따내어 다음 꽃이 잘 착과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박 등 과실은 잎 신문지, 물 등으로 가려주기를 합니다.
- **[과수]** 고온 시 과실 비대나 착색 발현이 불량하므로 미세살수 장치용 가동하거나 수관 상부에 차광망을 씌웁니다.
 - 햇빛 대당일소과 증상이 많은 과원은 분지를 써우거나 반사필름 씌는 시기를 늦추거나 생략합니다.



가축

- **[소]**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환기로 환경을 낮춰줍니다. 사료는 소량씩 자주 급여하고, 사료조는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돼지]** 자궁단열 보강 또는 지붕 위 물 뿌려주기 등으로 온사 온도 상승을 막아줍니다. 사료 급여횟수를 늘려주고, 온사주변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조성합니다.
- **[닭]** 계사 천정 단열을 보강하고 환기팬의 청소 및 상태를 점검합니다.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시원한 물을 급여하여, 충분한 환기로 체온도도를 낮춰 줍니다.

정전대비 시설하우스 관리요령

시설하우스 정전시 전기 구동장치(환기, 양액공급 장치 등)가 멈추면 시설 내 작물은 피해가 발생할



가솔린 발전기

- 시설하우스에 원활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상용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

- 비상용 디젤엔진 자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는 이동이 가능한 소형 가솔린발전기를 구매
 - 양액공급, 관수, 환기장치 개폐 등의 구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비



디젤 발전기

- 비상용 자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비가 오지 않을 때 : 이른 아침부터 열 창과 천창을 열어 정전에 대비하고 밤에도 창을 닫지 않는 것이 좋음
 - 차광률이 30~50%인 차광망을 설치해 고온피해에 대비
 - 한낮에 시설 내 온도가 높을 경우 : 동력 분무기 등을 이용해 물을 뿌려 주어 온도 상승 억제

시설하우스 농가는 여름철 정전사태에 대비해 비상용 디젤엔진 발전기나 소형 가솔린발전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